

금년 쌀 생산량 전년보다 약 5% 적은 460만 톤 내외로 전망

2008년 수확기에 비해 산지 쌀 가격 하락폭은 점차 확대

- 산지 쌀 가격은 2008년 수확기 이후 금년 3월 중순까지 약 16만 2천원/80kg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함.
- 8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6%, 수확기대비 5.7% 하락한 15만 2,728원/80kg으로, 4월 이후 산지유통업체의 수익성(역계절진폭)이 점차 악화됨.

금년 4월 이후 쌀 판매 감소율 둔화 추세

-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소매업체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6% 감소하였지만, 할인점 판매량이 4월 이후 늘면서 쌀 판매 감소율은 둔화됨(POS자료 분석결과).

재고 소진시기는 농협 11월 상순, 민간 8월 중순~10월 상순으로 전망

- 농협의 보유 재고량은 11월 상순에 소진될 전망이며, 이중 농협RPC는 10월 하순, 비RPC 농협은 11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단, 정부의 '08년산 10만 톤 매입 조치로 재고 소진시기는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 민간RPC의 재고 소진시기는 곡협과 양협 8월 이내, RPC협의회 10월 상순으로 전망됨.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52만 1천~464만 4천 톤 전망

- 2009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92만 5천ha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보다 0.1%, 중/중만생종이 1.3% 감소함.
- 기상악화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489~502kg/10a로 추정됨. 이 경우 쌀 생산량은 452만 1천~464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2009년산 수확기 가격은 전년대비 5.6~7.9% 하락한 14만 9천~15만 3천원/80kg으로 전망됨. 이는 쌀 생산량이 적었던 2007년산 수확기 가격보다 1.7~4.3% 높은 수준임.



■ 작년 수확기에 비해 산지 쌀 가격 하락폭은 점차 확대

- 200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11~12월) 이후 3월 중순까지 약 16만 2천원/80kg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산 쌀 생산이 많았던 데다가 경기침체로 쌀 판매마저 부진하여 소비시장에서 쌀 가격인하 요구가 강하였지만, 농협이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쌀을 판매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8월 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동일대비 5.6% 하락한 15만 2,728원/80kg(38,182원/20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확기대비 5.7% 하락한 수준으로 산지유통업체의 수익성(역계절진폭)이 4월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다.
- 소비자 가격도 2009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 8월 5일 기준으로 수확기대비 4.3% 하락한 18만 6,869원/80kg(46,717원/20kg)을 형성하였다. 산지가격과는 달리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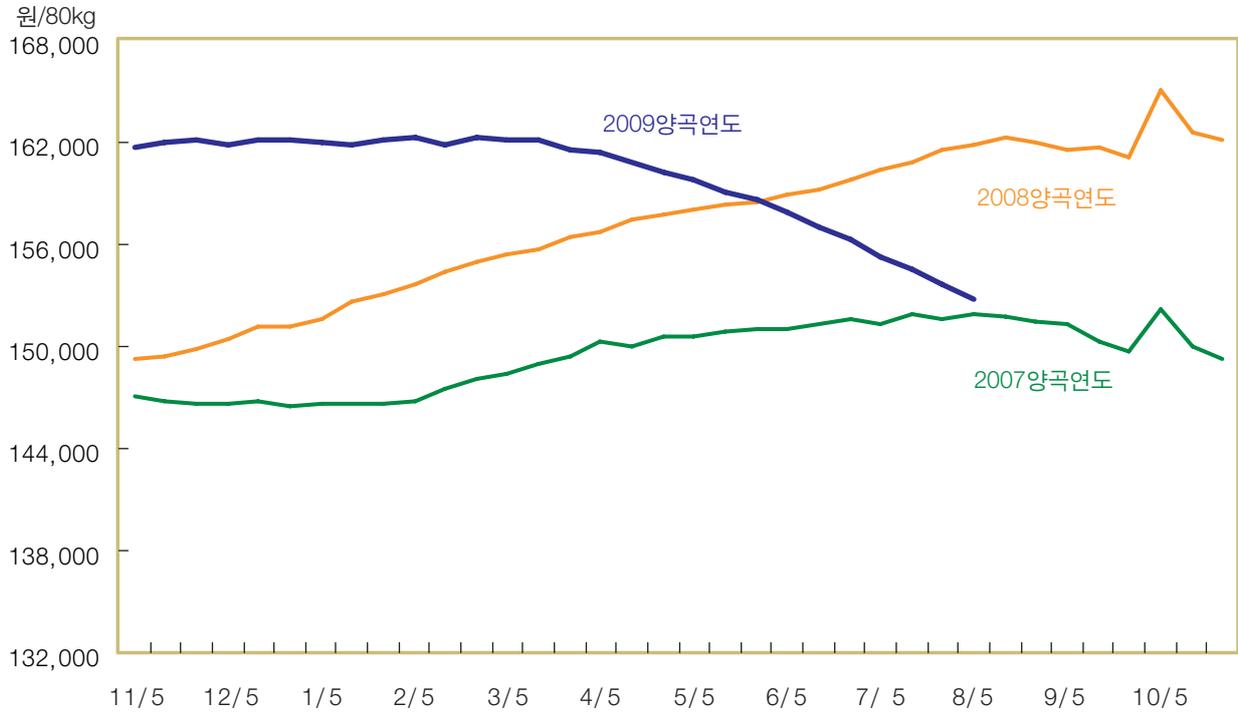
표 1. 전국 쌀 평균 가격

단위: 원/정곡80kg

		산지 정곡가격	소비자가격
2008양곡연도	수확기(11~12월)	150,251	180,817
	4월	157,352	183,841
	5월	158,293	184,107
	6월	159,307	184,659
	7월	160,893	185,948
	8월 5일	161,872	185,948
2009양곡연도	수확기(11~12월)	161,986	195,342
	4월	160,813	192,760
	5월	159,160	192,208
	6월	157,052	190,735
	7월	154,453	187,237
	8월 5일	152,728	186,869
등락률(%) (8월 5일기준)	전월대비	-1.1	-0.2
	전년 동기대비	-5.6	0.5
	수확기대비	-5.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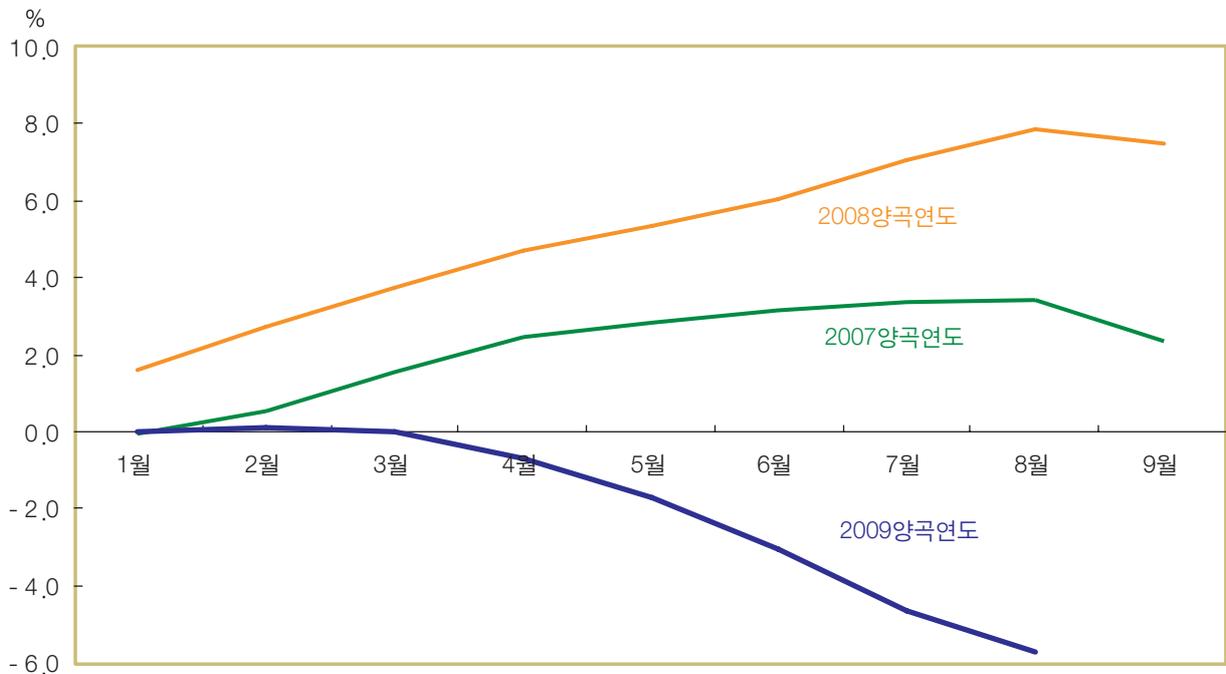
주: 양곡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이며, 쌀이 유통·소비되는 기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그림 1. 전국 평균 산지 정곡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계절진폭 추이



자료: 통계청.



■ 작년 수확기대비 쌀 가격 하락률은 충남이 가장 크고, 경남은 낮은 수준

- 8월 5일 기준으로 지역별로 수확기대비 쌀 가격 하락률은 충남이 8.5%로 가장 크고 경남이 3.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하락률은 충남이 9.0%로 가장 크고, 경기가 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지역별 산지 쌀 가격은 경기가 17만 3,224원/80kg(43,306원/20kg)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만 3,112원/80kg(35,778원/20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가격차는 3만 112원으로 수확기의 차이 2만 8,547원보다 2,223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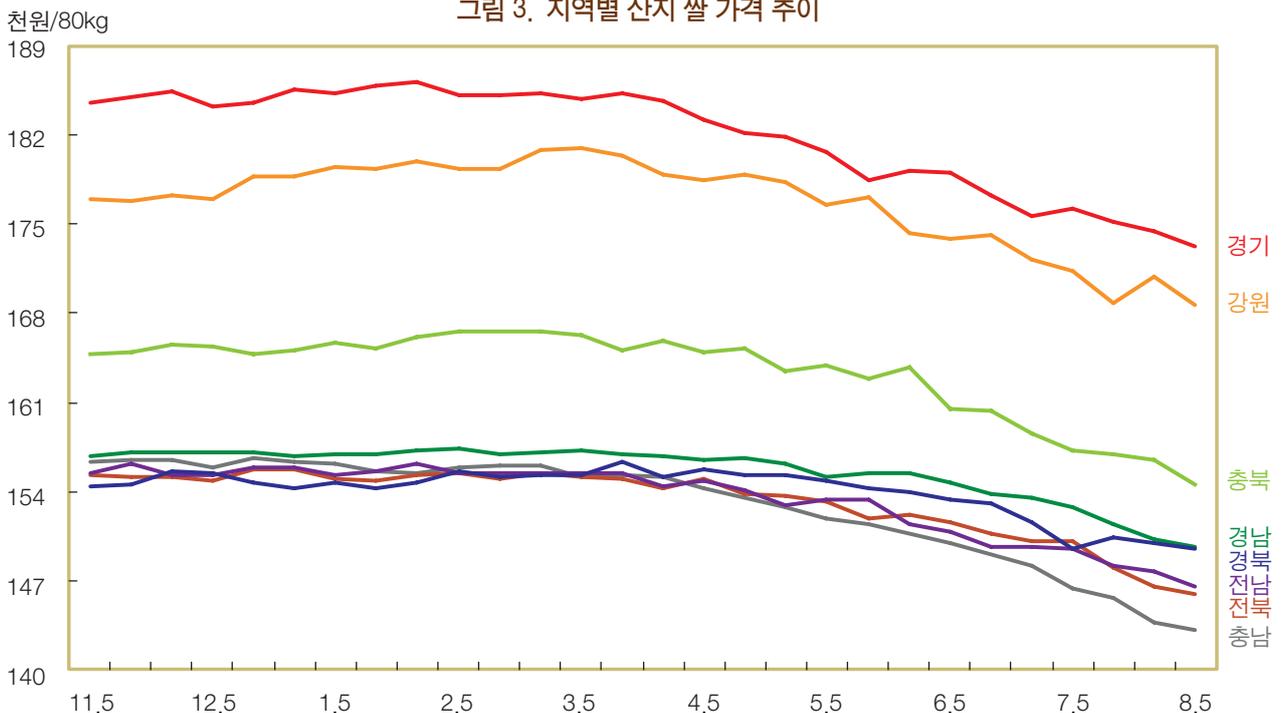
표 2. 지역별 산지 쌀 가격 변동

단위: 원/정곡80kg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8 양곡연도	8월 5일	175,412	172,428	162,628	157,268	156,992	156,332	161,592	158,284
2009 양곡연도	수확기(11~12월)	184,911	177,585	165,119	156,363	155,303	155,670	156,974	154,806
	4월	182,368	178,621	164,521	153,503	154,103	153,955	156,424	155,435
	5월	179,471	176,025	163,529	151,353	152,392	152,699	155,357	154,327
	6월	177,379	173,385	159,795	149,047	150,816	150,055	154,003	152,665
	7월	175,275	170,356	156,879	145,225	148,179	148,464	151,476	149,977
	8월 5일	173,224	168,724	154,604	143,112	145,904	146,540	149,540	149,684
등락률(%)	전년 동기대비	-1.2	-2.1	-4.9	-9.0	-7.1	-6.3	-7.4	-5.5
(8월 5일 기준)	수확기대비	-6.3	-5.0	-6.4	-8.5	-6.1	-5.9	-4.6	-3.4

주: 동 자료는 가격 등락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도별가격이 아님.
자료: 통계청.

그림 3. 지역별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4kg으로 전년대비 1.8% 줄어듦 전망

- 2008년 11월~2009년 4월까지 1인당 1일 쌀 평균 소비량은 204.3g으로 나타났다.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4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한 것이지만, 2000년대 평균 쌀 소비감소율 2.6%보다는 둔화된 수준이다.

표 3.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2006양곡연도	2007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2009양곡연도	증감률(%)		
	(A)	(B)	(C)	(D)	B/A	C/B	D/C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78.8	76.9	75.4	74.4	-2.4	-1.4	-1.8

주: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수확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소매업체 쌀 판매량은 전년대비 10.6% 감소

- 판매시점 정보(POS, point-of-sale) 표본자료 분석 결과,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소매업체의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양곡연도 소매업체들의 쌀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5월 쌀 관측 범호 조사치(-26.4%, 2008년 11월~2009년 3월까지)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 2009양곡연도 들어 소매업체들의 쌀 판매량은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대형 할인점들이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한 잦은 할인 행사 때문에 4월 이후 쌀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판매량을 보면, 할인점은 전년 동기대비 14.6%, 백화점은 19.7% 감소한 반면, 슈퍼와 일반식품점은 각각 29.1%, 18.5% 증가하였다.

표 4. 소매업체별 판매량 증감

단위: 톤(%)

	2008양곡연도 판매량 ('07.11~'08.06)	2009양곡연도 판매량 ('08.11~'09.06)	'09/'08 증감률(%)
전국	75,378(100)	67,367(100)	-10.6
백화점 ¹⁾	9,177(12.2)	7,365(10.9)	-19.7
할인점 ²⁾	57,785(76.7)	49,171(73.0)	-14.6
슈퍼 ³⁾	8,091(10.7)	10,447(15.5)	29.1
일반식품점 ⁴⁾	322(0.4)	382(0.6)	18.5

주 1) POS 자료 제공 샘플 점포는 백화점 15사, 할인점 12사, 체인슈퍼 11사, 편의점 4사, 독립슈퍼 및 일반식품점 7사 등 전국 1,853개 업체임. 신세계, 뉴코아 백화점과 이마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대 판매량은 적지만, 소비자 시장에서의 쌀 판매 추이는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소매업체별 판매량은 전년 11월~6월까지의 합계이며, ()는 비중임.

3) 슈퍼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체인슈퍼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독립 슈퍼를 의미함.

4) 일반식품점은 독립슈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로 월평균 매출 1억 미만의 점포임.

자료: 링크아즈텍.



■ 밥쌀용 수입쌀 판매 상당히 저조, 국내산과 수입쌀 간 가격차는 전년보다 확대

- 2009년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25만 7,114톤이었다. 이 중 밥쌀용 수입쌀은 전년대비 34.4%(1만 6,127톤) 증가한 6만 3,055톤, 가공용은 전년대비 8.1%(1만 7,216톤) 감소한 19만 4,059톤이다.
- 7월 30일 기준 밥쌀용 수입쌀 중 중국산 1등급 낙찰률은 36.1%, 미국산 1등급은 35.5%를 보였으며, 판매율도 각각 23.8%, 25.2%로 나타나 전량 판매되었던 전년에 비해 크게 저조하였다.
- 2008년에는 2007년산 작황 부진으로 국내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급식업체 등 대형 수요처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하여 수입쌀이 전량 판매되었다. 2009년 들어 초기에는 수입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쌀 수요가 줄었지만, 이후 수입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격차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재고가 많고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대형 수요처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식당들도 수입쌀 이용을 꺼렸기 때문에 밥쌀용 수입쌀의 낙찰률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밥쌀용 수입쌀 판매결과 (7월 30일 기준)

구 분		밥쌀용 수입쌀			
		계획량(A)	판매량(B)	판매율(B/A)	낙찰률
중국산	1등급	26,349	6,266	23.8	36.1
	3등급	15,717	0	0.0	0
미국산	1등급	15,191	3,835	25.2	35.5
	3등급	3,798	0	0.0	0
태국산	1등급	2,000	2,000	100	100

단위: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9년 밥쌀용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은 미국산 1등급이 2만 6,049원/20kg으로 전년보다 15.4% (4,731원), 중국산은 2만 4,787원/20kg으로 전년보다 16.7%(4,953원) 하락하였다. 수입쌀과 국내 산지 가격간의 비율은 미국산 1등급이 66.0%, 중국산 1등급이 62.8%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5월 초까지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이 전년에 비해 약 2,000원 정도 높아 가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판매저조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이 낮아졌다.

표 6.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과 국내 산지 평균가격 비율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A)			국내 산지 평균가격(B)			가격비율(B/A)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산 1등급	27,140	29,740	24,787	37,342	39,291	39,467	72.7	75.7
미국산 1등급	27,260	30,780	26,049				73.0	78.3	66.0

단위: 원/20kg, %

주: 2009년 수입쌀은 2009.4.2~7.30 평균 낙찰가격, 국내산은 2009.4~7 산지 평균 가격임.
 자료: 시판용 수입쌀 낙찰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 산지가격은 통계청.

■ 7월 산지유통업체 쌀 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8% 하락

- 7월 산지유통업체들의 쌀 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8% 하락한 3만 8,524원/20kg으로 조사되었다. 농협RPC의 쌀 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6% 낮은 3만 9,383원/20kg, 민간RPC는 3만 6,943원/20kg으로 전년대비 7.6% 낮은 수준이다.
- 벼(조곡) 가격 하락과 함께 쌀(정곡)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락폭은 벼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표 7.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가격

단위: 원/20kg, %

	5월	6월	7월
농협RPC	40,918(0.9)	40,360(-1.5)	39,383(-4.6)
민간RPC	38,577(-1.4)	37,968(-3.4)	36,943(-7.6)
전체	40,066(-0.1)	39,443(-2.2)	38,524(-5.8)

주: ()은 전년 동기대비 가격 등락률(%)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2009.8.3~5).

■ 7월 지역별 쌀 판매가격은 경기·강원이 가장 높고, 충남이 가장 낮은 수준

- 7월 지역별 쌀 판매가격을 보면, 경기·강원이 약 4만 3,400원/20kg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3만 5,792원/20kg으로 가장 낮았다. 충북은 3만 8,354원/20kg, 경북, 경남은 약 3만 7,300원/20kg, 전북, 전남은 약 3만 6,600원/20kg 수준에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월에는 중고가미를 주로 생산하는 경기·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쌀 판매가격이 3만 7,000원~3만 8,000원/40kg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에는 평균 3만 6,700원 수준을 보였다.

표 8. 지역별 산지 쌀 판매가격

단위: 원/20kg,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월	46,192(3.4)	44,970(5.6)	39,767(0.3)	37,627(-3.1)	38,370(-1.5)	38,165(-1.5)	38,841(-1.1)	38,268(-1.2)
6월	45,053(0.9)	45,244(3.0)	38,750(-1.1)	36,874(-5.6)	37,855(-2.5)	37,492(-3.3)	38,060(-3.0)	37,539(-3.5)
7월	43,788(-6.3)	43,060(-2.4)	38,354(-3.4)	35,792(-8.6)	36,527(-6.9)	36,647(-5.8)	37,470(-6.1)	37,097(-9.5)

주: ()은 전년 동기대비 가격 등락률(%)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2009.8.3~5).

■ 7월말 재고는 농협이 전년보다 114%, 민간은 45% 증가

-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 7월말 재고량은 4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산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적어 2008년 단정기에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가 많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2008년산 생산량이 많고 경기침체로 쌀 판매도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농협RPC와 비RPC농협은 각각 25만 7천 톤, 16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4.7%, 185.7% 증가하였고, 민간RPC는 7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4.8% 증가하였다.
- 2009년 7월말 기준 농협의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0.3%(4월말 기준 -28.7%) 감소한 85만 톤으로 여전히 쌀 판매가 적었지만, 4월 이후 농협이 쌀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쌀 판매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 민간RPC 재고가 4월말에는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7월에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전년에 단경기 벼 가격이 높아 매입이 어려웠던데 비해, 2009년에는 단경기 벼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일찍 소진된 일부 민간RPC들이 재고가 많은 농협의 벼를 매입하였기 때문이다.

표 9. 산지유통업체 7월말 재고 동향

단위: 천 톤/정곡, %

	매 입				판 매				재 고			
	'08.7	'09.7	증감	증감률	'08.7	'09.7	증감	증감률	'08.7	'09.7	증감	증감률
농협RPC	862	824	-38	-4.4	722	567	-156	-21.5	139	257	118	84.7
비RPC농협	400	444	44	10.9	344	283	-61	-17.7	56	161	104	185.7
소계	1,262	1,268	6	0.5	1,066	850	-217	-20.3	196	418	223	113.7
민간RPC	423	458	35	8.3	390	414	25	6.4	34(50)	44(72)	10(22)	30.1(44.8)
전체	1,685	1,726	41	2.4	1,456	1,264	-192	-13.2	229(245)	462(490)	233(245)	101.5(99.8)

주: ()은 RPC협의회 재고를 합한 수치임.
 자료: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 산지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말 재고량은 전년 동기대비 8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별로 농협RPC와 비RPC농협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83.0%, 170.2% 증가, 민간RPC는 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집계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산지유통업체 7월말 재고량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농협RPC	비RPC농협	민간RPC	전체
83.0	170.2	36.7	89.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2009.8.3-5).

■ 농협 재고는 11월 상순에 소진될 전망

- 2009년 7월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전년 판매량 기준으로 11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RPC 재고 소진시기는 10월 하순, 비RPC농협은 11월 상순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08년산 쌀 10만 톤 매입 조치로 재고 소진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0월 중순, 강원이 10월 하순, 전남, 경북, 경남이 11월 상순, 경기, 충북, 전북은 11월 중순 이후에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지역별 농협 재고 소진기간

단위: 천 톤/정곡

	농협재고('08.7.31)			월평균판매량			재고소진개월수		
	농협RPC	비RPC농협	계	농협RPC	비RPC농협	계	농협RPC	비RPC농협	계
경기	39	25	64	10	6	17	3.8	3.9	3.8
강원	16	7	22	5	2	8	2.9	2.8	2.9
충북	20	5	24	4	2	6	4.7	2.1	3.8
충남	40	20	60	18	6	25	2.2	3.1	2.4
전북	38	40	79	14	10	24	2.8	4.1	3.4
전남	50	39	89	17	12	29	2.9	3.3	3.0
경북	28	12	39	8	4	13	3.3	2.7	3.1
경남	18	11	29	7	3	10	2.7	3.1	2.9
광역시	10	2	12	3	1	4	3.6	1.6	2.9
전국	257	161	418	87	48	135	3.0	3.3	3.1

자료: 농협중앙회.

■ 곡협, 양협 재고는 8월 이내, RPC협의회 재고는 10월 상순에 소진 예상

- 2009년 7월말 기준 민간RPC 재고 소진시기는 대한곡물협회가 8월 하순, RPC협의회가 10월 상순, 양곡가공협회가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민간RPC 재고 동향 및 소진시기

단위: 천 톤/정곡

	12월말기준 매입실적	1월 이후 매입량	매입량합계	7월말까지 판매량	7월 31일 기준 재고량	재고소진 예상시기
대한곡물협회	190	174	364	327	37	8월 하순
RPC협의회	214	53	267	239	28	10월 상순
양곡가공협회	70	24	94	87	7	8월 중순

자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 2009년산 벼 재배면적 전년대비 1.2% 감소한 92만 5천ha 추정

- 2009년 8월 초 농업관측정보센터의 논벼 농가 표본조사 결과, 금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만 1,000ha(-1.2%) 감소한 92만 5,000ha로, 전년(-1.5%)보다 감소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조생종과 중/중만생종 각각 전년대비 0.1%,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생종은 지역별로 호남과 영남이 증가한 반면, 경기·강원과 충청은 감소하였다. 특히 전남은 자체 사업으로 태풍 피해가 적고 추석수요에 맞추기 위해 조생종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경북과 경남도 소폭이지만 조생종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강원과 충청은 2009년 단경기 가격 하락과 재고부담으로 조생종 가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농가들이 많아, 중만생종과 찰벼로 품종을 전환한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경기·강원과 충청 지역의 중/중만생종은 2009년 들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작물인 시설하우스 (오이, 호박, 수박 등) 재배로 전환한 면적이 늘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과 영남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표 13. 2009년산 벼 재배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조생종	중/중만생종	계
전 국	-0.1	-1.3	-1.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벼 표본농가 1,663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09.7.30~8.6).

- 찰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찰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산 쌀 가격이 하락세이고, 2009년산 조생종 가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농가들이 찰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찰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충청에서 16.3% 증가폭으로 가장 크고, 경기·강원에서 12.9%, 호남에서 10.5%, 영남에서 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2009년산 찰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국
12.9	16.3	10.5	6.9	11.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벼 표본농가 1,663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09.7.30~8.6).

■ 200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52만 1천~464만 4천 톤 전망

- 단수는 쌀 등숙기인 8~9월 기상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현재까지 기상상황을 보면 강수량이 전년보다 많고(전년대비 7월 강수량 광주 289.3%, 대전 53.1%, 전주 126.7%, 대구 289.7% 증가), 흐린 날이 많아 일조량이 전년보다 적었다(전년대비 7월 일조시간 광주 44.9%, 대전 8.5%, 전주 43.3%, 대구 54.0% 감소).
- 또한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잎도열병 등 세균성 질병 발생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산 벼 작황은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663호를 대상으로 2009년산 벼 예상작황을 조사한 결과, 평년(496kg/10a)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고, 좋다 16.3%, 나쁘다 19.5%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단수를 추정하면 금년 단수는 489~502kg/10a로 전망된다.

표 15. 2009년산 벼 예상작황 수준

단위: %

	아주 좋다	좋다	비슷하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평년대비	0.1	16.3	63.1	19.5	1.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벼 표본농가 1,663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09.7.30~8.6).

- 2009년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1.2% 감소한 92만 5천ha, 단수를 489~502kg/10a으로 가정 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452만 1천~464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생산량보다 4.1~6.7% 적은 수준이다.

표 16. 2009년산 쌀 생산량 전망

	2008년산(A)	2009년산(B)	B/A(%)
면적(천ha)	936	925	-1.2
단수(kg/10a)	520	489~502	-6.0~-3.4
생산량(천 톤)	4,843	4,521~4,644	-6.7~-4.1

주: 단수는 논벼단수로 2009년산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쌀 관측팀 추정치임.

2009년산 수확기 전망

■ 2009년산 수확기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14만 9천원~15만 3천원 전망

-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 쌀 소비감소율, 전년 계절진폭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변동된다.
- 수확기 가격 추정을 위해 200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52만 1천 톤~464만 4천 톤, 계절진폭은 -3.8~6.0%(7~8월 5일 평균 계절진폭 -4.9%), 1인당 쌀 소비감소율은 1.4~2.4%로 가정하였다.
- 추정 결과 2009년산 수확기 가격은 14만 9천원~15만 3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5.6~7.9% 하락한 수준이나, 2007년산(440만 8천 톤) 수확기 가격(14만 6,688원/80kg)보다는 1.7~4.3% 높은 수준이다.
-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농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10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현재 시장 재고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금년 생산량도 전년보다 약 5%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확기 쌀 수급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2009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2008년산	2009년산
생산량	484만 3천 톤	452만 1천 톤~464만 4천 톤
수확기 가격	16만 1,986원/80kg	14만 9,178원~15만 2,968원/80kg

주: 수확기 가격은 11~12월, 단경기 가격은 7~8월 평균 가격임.

「쌀 관측」 9월 수확기 속보 예고 (예정일자: 2008. 9. 15)

내용: 가격동향/전망, 소비동향/전망, 산지유통업체 재고 및 거래동향, 국제수급 및 가격동향
이 「쌀 관측보」는 인터넷(<http://www.krei.re.kr>, <http://aglook.krei.re.kr>)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쌀 관측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TEL: 02)3299-4261 FAX: 02)964-5631

담당자: 허 덕(huhduk@krei.re.kr), 최익창(cic@krei.re.kr), 박미성(mspark@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이 「쌀 관측」은 농림수산물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쌀 관련 가격, 재고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과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